

죽음 현저성에 따른 공감 하위유형의 연령차*

Received: 17 July 2026
Revised: 26 August 2026
Accepted: 7 September 2026

조운서¹, 강효신²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과정¹,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²

교신저자: 강효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E-MAIL:
hyoshin.kang@knu.ac.kr

Age Differences in Empathy Subtypes in Response to Mortality Salience

Yunseo Jo¹, Hyo Shin Kang²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M. A.¹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²

* 해당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2026년
한국임상심리학회 봄 학술대회
포스터로 발표됨.

* 이 논문은 202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6S1A5C4021468).



© Copyright 2026,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본 연구는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죽음 현저성 조작이 공감 하위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령과 죽음 현저성 조작 조건에 따라 청년-통제 집단(25명), 청년-죽음 현저성 집단(28명), 노인-통제 집단(26명), 노인-죽음 현저성 집단(27명)의 네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죽음 불안 및 특성 공감 설문 작성 후, 죽음 현저성 과제와 상태 공감 과제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청년은 노인보다 높은 수준의 죽음 불안을 보였다. 또한 죽음 불안은 두 연령 집단 모두에서 특성 공감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나, 공감의 하위유형과의 관련성은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상태 공감에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죽음 현저성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타인지향적 공감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반면 인지적 공감은 청년에 비해 노인 집단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 자기지향적 공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공감의 하위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에 대한 공감적 관심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죽음 현저성, 공감, 연령차

인간은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자기 성찰을 하며, 이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 사회적 소외, 개인의 자유와 같은 삶의 실존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Yalom, 1980). 그중 죽음은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다. 생애 전반에 걸쳐 질병, 사고, 타인의 죽음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죽음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빈번해진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본질적으로 불안을 유발하며, 죽음 불안은 우울, 불안, 강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정신병리의 초진단적(transdiagnostic)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Gürbüz & Yorulmaz, 2024; Iverach et al., 2014). 이는 죽음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부적응적인 반응이 다양한 형태의 심리장애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된다(Arndt et al., 2005). 죽음은 20세기 심리학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된 핵심 주제 중 하나이며, 죽음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Koole et al., 2006).

죽음 현저성(mortality salience)은 죽음을 의식하거나 상기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Greenberg et al., 1986). 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기술하는 글쓰기 과제를 통해 유도되며, 이러한 조작은 공포관리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 TMT)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Burke et al., 2010). 선행 연구에서는 죽음 관련 사고의 활성화에 따라 다양한 심리적·행동적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TMT에 따르면 죽음 인식은 실존적 불안을 일으키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억제와 같은 근거리 방어(proximal defense)가 작동하여 죽음 관련 사고를 의식 수준에서 밀어낸다(Arndt et al., 1997). 이후 문화적 세계관 강화,

자존감 유지, 친밀한 관계 추구하고 같은 원거리 방어(distal defense)를 통해 불안을 완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Taubman-Ben-Ari et al., 2002; van Lange et al., 2012). 문화적 세계관은 현실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공유된 신념 체계로, 자신이 속한 문화의 가치와 신념을 지지하고 따름으로써 죽음으로 인한 소멸에 대한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Greenberg & Arndt, 2012). 이러한 방어 과정은 사회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죽음 현저성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내집단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반면(Jonas et al., 2002), 문화적 세계관을 위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Greenberg et al., 1990). 이는 자신이 속한 문화의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며, 이타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죽음 불안을 완화하려 한다는 TMT의 설명과 일치한다(Hohman & Hogg, 2015; Zaleskiewicz et al., 2015).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친사회적 행동이나 집단 간 태도에 초점을 두었으며, 공감과 같은 사회인지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Schimmel et al., 2006). 공감은 대인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죽음 인식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심리적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 죽음에 대한 태도와 반응은 달라질 수 있으며, 성인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는 경향이 보고되어 왔다(Chopik, 2017).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 죽음 불안의 연령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부족하다(이우제, 조은이, 2022; Chan & Yap, 2009; Schumaker et al., 1991).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령 차이와 관련하여 죽

음 관련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경험과 노년기의 긍정적인 정서 조절 경향이 제안되었다(Carstensen et al., 1999; Maxfield et al., 2010). 공포관리이론 관점에서 노인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며, 이러한 관계가 안정감 및 자존감의 원천이 되어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죽음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한다(Arndt & Vess, 2008). 이처럼 죽음에 대한 반응이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죽음 인식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 역시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직접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제한적이다(Pyszczynski et al., 2006). 특히 죽음 현저성과 공감 간의 관계를 연령에 따라 비교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죽음 인식과 사회적 정서 반응 간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감(empathy)은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Davis, 1983). 공감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여겨지며 안정성에 따라 특성 공감과 상태 공감으로, 구성에 따라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된다(Cuff et al., 2016). 특성 공감(trait empathy)은 개인의 안정적인 공감 경향을 나타내며, 상태 공감(state empathy)은 자극에 의해 일시적으로 유발된 공감 반응을 의미한다(Kunyk & Olson, 2001). 한편, 인지적 공감(cognitive empathy)은 타인의 감정, 의도,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이며, 정서적 공감(emotional empathy)은 타인의 정서를 함께 경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Shamay-Tsoory et al., 2009).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인지적 공감에 해당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정서적 공감이 다시 정서 공유 및 개인적 고통, 그리고 공감적 관심으로 구분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Quinde-Zlibut et al., 2021; Zahn-Waxler & Radke-Yarrow, 1990). 정서 공유와 개인적 고통은 타인의 정서에 대한 반응이 자신에게 초점화되는 자기지향적 특징이 있는 반면, 공감적 관심은 타인에 대한 염려와 동정심을 포함하는 타인지향적인 반응으로 여겨진다(Jordan et al., 2016; Zhao et al., 2019). 예를 들어, 타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자기지향적 공감에 해당하는 반면, 고통받는 사람에게 염려나 연민을 느끼는 것은 타인지향적 공감에 해당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감을 특성 공감과 상태 공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다시 인지적 공감(cognitive empathy), 자기지향적 공감(self-oriented empathy), 타인지향적 공감(other-oriented empathy)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공감 능력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인지적 공감은 청년에 비해 노인에서 감소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다(Baksh et al., 2018). 특히 노화로 인한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의 저하와 배내측 전전두 피질(dorsomedial prefrontal cortex)의 활성화 감소가 노인의 인지적 공감 저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Moran et al., 2012; Yan et al., 2020; Ze et al., 2014). 반면, 정서적 공감의 연령 차이는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으며, 청년과 노인 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노인이 높다는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Beadle & de la Vega, 2019). 정서적 공감을 자기지향적 공감과 타인지향적 공감으로 세분화한 연구에서는 노인의 타인지향

적 공감의 높고 자기지향적 공감이 낮다는 결과가 보고된 한편, 자극의 특성과 측정 방법에 따라 자기지향적 공감 역시 노인에서 높게 나타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Gould & MacNeil Gautreau, 2014; Sun et al., 2018; Sze et al., 2012). 이는 연령에 따른 공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자극의 맥락과 공감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죽음 불안은 죽음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정서적 반응으로, 타인에 대한 대인관계적 반응과도 관련될 수 있다(Mikulincer et al., 2003). 따라서 죽음 불안과 공감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죽음 불안이 타인의 정서에 반응하는 방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죽음 불안이 개인이 평소에 경험하는 죽음에 대한 불안 수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평소의 공감 경향을 나타내는 특성 공감과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죽음 불안과 공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보고되어 왔으며, 대부분 보건의로 맥락에서 수행되었다(Handagsoon & Varma, 2019; Ye et al., 202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인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죽음 불안과 특성 공감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죽음 불안과 공감의 관계는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미래시간조망(future time perspective)은 남아 있는 미래 시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의미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래 시간을 제한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강효신, 김빛나, 2021). 사회정서선택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SST)은 이러한 미래시간조망의 차이가 사회적 목표와 정서적 반응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청년은 미래 지향적 목표와 정보 추구를 우선시하는 반면, 노인

은 정서적 안정과 친밀한 관계를 보다 중요시한다. 이에 따라 청년에서는 죽음 불안이 자기지향적 공감과, 노인에서는 타인지향적 공감과 더 밀접한 관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죽음 현저성과 상태 공감의 관계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신경학적 연구와 행동 연구를 통해 연관성이 제시되어 왔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연구에서는 죽음 현저성 점화 이후 타인의 고통을 관찰할 때 공감과 관련된 뇌 영역인 중대상피질(middle cingulate cortex)과 배내측 전전두엽의 활성 감소가 보고되었다(Luo et al., 2014). 반면, 공감과 밀접하게 관련된 친사회적 행동 연구에서는 실존적 위협이 친사회적 태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스크루지 효과(Scrooge effect)가 확인되었다(Jonas et al., 2002).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개인의 가치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Yen et al., 2021; Zaleskiewicz et al., 2013). 이처럼 죽음 현저성은 공감 및 친사회적 반응을 일관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보다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령 역시 죽음 현저성에 대한 공감 반응과 관련된 중요한 개인적 특성으로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청년은 노인에 비해 죽음 관련 사고를 더욱 위협적으로 경험하여 자기보존 동기와 자기초점적 반응이 강화될 수 있다(Yen et al., 2021). 반면, 노인은 삶의 유한성에 대한 수용과 친밀한 관계 추구로 인해 죽음 현저성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친사회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Arndt & Vess, 2008; Maxfield et al., 2010). 따라서 죽음 현저성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죽음에 대한 인식과 공감의 관계를 연령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죽음 불안의 연령 차

이를 살펴본 선행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청년과 노인의 죽음 불안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죽음 불안과 특성 공감의 관계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죽음 현저성 조작에 따른 상태 공감의 차이가 연령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가 주로 친사회적 행동이나 집단 간 태도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공감을 세분화하여 각 하위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관계의 핵심 기제인 공감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연령 차이를 고려한 공감의 다차원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죽음 불안 수준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2. 죽음 불안과 특성 공감 하위유형의 관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3. 상태 공감 하위유형은 연령과 죽음 현저성 조작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과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표본 수는 MANCOVA를 기준으로 효과크기 .2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고(Faul et al., 2009), 최소 표본 수는 약 100명이었다. 참가자는 교내 온·오프라인 게시판, SNS, 지역 노인 센터, 복지관 등을 통해 모집하였다. 노인의 경우, 강연옥 등(2020)의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 2판 단축형(Korea-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2nd; Brief Version, K-MMSE-2:BV)에서 16%ile 이상의 수행을 보여 인지 기능이 정상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참가자에 포함하였다. 최종 선정된 106명은 연령과 죽음 현저성 조작 조건에 따라 네 집단(청년-통제 집단, 청년-죽음 현저성 집단, 노인-통제 집단, 노인-죽음 현저성 집단)에 무선 할당되었다. 모든 참가자는 연구 목적 및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하였으며, 중도 탈락한 참가자는 없었다. 본 연구의 전 과정은 경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2025-0209) 하에 진행되었다.

청년 집단의 평균 연령은 23.1세($SD = 2.7$, $R = 19 \sim 29$)이고, 노인 집단은 73.4세($SD = 7.1$, $R = 60 \sim 89$)이었다. 조작 조건에 따른 연령, 성별 및 학력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51) = -.700$, ns ; $t(51) = .880$, ns ; $\chi^2(1) = .408$, ns ; $\chi^2(1) = 2.344$, ns ; $\chi^2(4) = 5.938$, ns ; $\chi^2(6) = 9.251$, ns . 학력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 노인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가장 많았다, $\chi^2(21) = 96.905$, $p < .001$. 또한 우울 수준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3, 102) = .690$, ns .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심리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심리적 특성 ($N = 106$)

변인	청년-통제 ($n = 25$)	청년-MS ($n = 28$)	t / χ^2	노인-통제 ($n = 26$)	노인-MS ($n = 27$)	t / χ^2	F / χ^2
연령 (세)	22.80 (2.89)	23.32 (2.54)	-.700 ^a	74.31 (7.25)	72.59 (6.94)	.880 ^a	759.588*** ^b
성별 (여자, %)	13 (52.0)	17 (60.7)	.408 ^c	17 (65.4)	12 (44.4)	2.344 ^c	2.798 ^c
중졸 이하	-	-		16 (61.5)	11 (40.7)		
학력 (명, %)							
고졸	19 (76.0)	16 (57.1)	5.938 ^c	7 (27.0)	6 (22.3)	9.251 ^c	96.905*** ^c
대졸 이상	6 (24.0)	12 (42.9)		3 (11.5)	10 (37.0)		
우울 (점수)	13.56 (9.15)	11.86 (7.83)	.730 ^a	15.31 (10.23)	14.59 (10.27)	.254 ^a	.690 ^b

주. ^a는 독립표본 t검정, ^b는 일원분산분석, ^c는 Fisher의 정확검정.

MS: Mortality Salience. *** $p < .001$.

연구도구

Templer 죽음 불안 척도

죽음 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Templer (1970)가 개발하고 고효진 등(2006)이 번안 및 타당화한 죽음 불안 척도(Death Anxiety Scale, DAS)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하위 요인인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 죽음 생각의 부인, 짧은 시간 지각, 죽음과 연관된 사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 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고효진 등(2006)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반응지수

특성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Davis (1983)가 개발하고 박성희(1997)가 번안한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

심, 개인적 고통의 4가지 하위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관점 취하기'는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며, '상상하기'는 책이나 영화 속 가상의 인물의 관점에서 상상하고 이해하는 정도를 말한다. '공감적 관심'은 타인의 어려움에 대한 염려와 따뜻한 관심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개인적 고통'은 타인의 고통을 보고 자신이 경험하는 괴로움과 불편감의 정도를 말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하는 2요인 모델에 비해 네 가지 하위 척도를 독립적으로 보는 4요인 모델이 더욱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Chrysikou & Thompson, 2016). 다만, 일부 연구에 따르면 상상하기가 다른 하위 차원들과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적인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다(Jordan et al.,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상하기를 제외한 관점 취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의 세 하위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리커트 척도(1: 매우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관점 취하기를

특성 인지적 공감, 개인적 고통을 특성 자기지향적 공감, 공감적 관심을 특성 타인지향적 공감으로 해석하였다(전효리, 강효신, 2025). 박성희(1997)가 보고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0~.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7(청년 .76, 노인 .40)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

주관적으로 보고하는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전경구 등(2001)이 국내에서 사용되던 3개의 CES-D 문항을 통합하여 제시한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우울정서, 긍정정서, 대인관계, 신체적 저하의 4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20문항이며, 각 문항에 대해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과 일치하는 정도를 4점 리커트 척도(0: 극히 드물게 [1일 이하] ~ 3: 거의 대부분 [5~7일])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경구 등(2001)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려는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김용석(2010, 2018)이 개발 및 타당화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ocial Desirability Scale-24, SDS-24)를 사용하였다.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무의식적 경향인 자기기만과 타인에게 바람직한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의식적 경향인 인상관리의 2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은 16문항과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한

다. 자기기만 척도는 4 또는 5로 응답하면 1점, 인상관리 척도는 1 또는 2로 응답한 경우에 1점을 부여한다. 합산 점수가 클수록 사회적 바람직성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바람직성이 자기보고식 설문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통해 원점수와 수정점수를 비교하였다. 김용석(2018)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

죽음 현저성 조작이 공감에 미치는 효과가 조작 과정에서 유발된 부정 정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Watson 등(1988)이 개발하고 이현희 등(2003)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박홍석 등(2016)이 재타당화한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죽음 현저성 조작 이후 원거리 방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 지연이 필요하다(Greenberg & Arndt, 2012; Schindler et al., 2021). 따라서 죽음 현저성 조작 이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조작으로 인한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PANAS를 실시하였다. 본 척도는 정적 정서 요인 10문항, 부정 정서 요인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와 관련된 20개의 단어를 읽고 기분과 일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많이 그렇다)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적 또는 부정 정서를 많이 경험함을 의미한다. 박홍석 등(2016)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1이며,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다면적 공감 검사

상태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Dziobek 등(2008)이 개발한 Multifaceted Empathy Test (MET)을 이슬아 등(2016)이 한국에 맞게 개발 및 타당화한 Korean-Multifaceted Empathy Test (K-MET)을 사용하였다. K-MET은 기존 MET을 보완하기 위해 보다 복잡한 사회적 맥락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과제를 추가하여 총 2개의 파트로 구성되었다. part 1은 이야기가 있는 일련의 사진(4~5장)을 제시한 후, 등장인물의 생각 및 감정을 추론하는 주관식 질문이 주어진다. 또한 정서 상태를 추론하는 인지적 공감 질문("이 사람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이 제시되고, 정서적 공감 질문이 주어진다. 이때 정서적 공감은 암묵적 정서적 공감과 명시적 정서적 공감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암묵적 정서적 공감("이 사진을 보면 얼마나 차분해지거나 각성이 됩니까?")은 사진 속 상황에 대한 개인의 각성 수준을 평정한다. 명시적 정서적 공감("이 사람을 보니 마음이 얼마나 좋게 느껴집니까?", "이 사람을 보니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집니까?")은 대상에게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이나 염려 정도를 보고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적 공감은 객관식 보기가 주어지며, 정서적 공감은 9점 리커트 척도(1: 이완/차분 ~ 9: 각성/흥분 또는 1: 전혀 아니다 ~ 9: 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part 2는 하나의 사진이 주어지고 part 1의 주관식 문항을 제외한 인지적 공감, 암묵적 정서적 공감, 명시적 정서적 공감 질문이 동일하게 제시된다. 인지적 공감 척도는 문항마다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총점(총 26점)으로 산출된다. 암묵적 정서적 공감 척도와 명시적 정서적 공감 척도는 각각 20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인지적 공감은 상태 인지적 공감을, 암묵적 정

서적 공감은 정서 공유를 반영한 상태 자기지향적 공감을, 명시적 정서적 공감은 공감적 관심을 반영한 상태 타인지향적 공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Dziobek et al., 2008; Oliver et al., 2016).

죽음 현저성 조작

본 연구에서 죽음 현저성은 죽음 관련 에세이 작성 과제를 통해 조작하고, 통제 조건으로는 죽음 관련 사고와 유사하게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치통 과제를 사용하였다. 청년과 노인은 각각 죽음 현저성 조건 또는 통제 조건에 무선 할당되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였다. 각 과제는 제시된 상황에 대해 5분간 글을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죽음 현저성 조건은 "자신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작성해 주세요."와 "자신이 죽음을 경험할 때와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의 두 문항에 응답하였다. 통제 조건은 "자신이 강한 치통을 경험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작성해 주세요."와 "자신이 치통을 경험할 때와 치통 경험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의 두 문항을 작성하였다.

조작 점검

본 연구에서는 이슬비 등(2020)의 연구를 참고하여, 조작 점검 문항을 구성하였다. 조작 과제 수행 중 주제에 대한 몰입 정도와 죽음 및 치통에 대한 사고 빈도를 측정하여 조작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총 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 매우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몰입도와 잦은 생각 빈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글을 작성하는 동안 주제에 몰입했다, 2) 글을 작성하는 동안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했다, 3) 글을 작성하는 동안 치통에 대해 자주 생각했다.

연구절차

자발적인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모든 참가자는 대면으로 연구 설명 및 준수사항을 안내받았으며,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먼저 자기보고식 설문에 응답하여 죽음 불안(DAS), 특성 공감(IRI), 우울(CES-D), 사회적 바람직성(SDS-24)을 측정하였다. 설문을 완료한 참가자는 무선 할당된 조건에 따라 죽음 또는 치통에 대한 글쓰기를 5분간 수행하였다. 글쓰기 이후에는 모든 집단이 조작 점검과 PANAS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태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컴퓨터로 K-MET 과제를 수행하였고, 참가자는 제시된 자극에 마우스 및 키보드, 그리고 답안지를 활용하여 반응하였다. 전체 실험 소요 시간은 청년의 경우 약 45분, 노인의 경우 약 55분이었다.

자료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개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One-way ANOVA), Fisher의 정확검정(Fisher's exact test)으로 분석하였다. 죽음 불안과 특성 공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

제한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청년과 노인의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보기 위해 연령 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특성 공감의 연령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한 특성 공감 점수는 김용석(2010)의 회귀 기반 산출 방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이후 죽음 현저성 조작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조작 점검 문항과 PANAS 점수의 집단 간 차이를 MANOVA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령과 죽음 현저성 조작 조건에 따라 상태 공감 수준이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위해 2(연령: 청년, 노인) × 2(조건: 통제, 죽음 현저성) 설계의 다변량 공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covariance, MANCOVA)을 실시하였다. 상태 공감의 하위요인 3가지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보고식 공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공감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육 수준 또한 공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isenberg & Lennon, 1983; Sommerlad et al., 2021). 또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응답하려는 경향인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을 경우, 자기보고식 공감 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Sassenrath, 2020). 따라서 성별, 학력, 사회적 바람직성을 공변량으로 포함하여 이들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한편, 특성 공감은 상태 공감의 사전 측정치가 아닌, 개인의 일반적인 공감 성향을 반영하는 별도의 구성 개념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죽음 현저성 상황에서 나타나는 상태 공감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므로 특성 공감을 공변량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죽음 현저성이 공감의 하위유형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IBM SPSS

version 29.02.0을 사용하였다.

결 과

개인특성

자기보고식 척도로 측정된 주요 변인의 집단 간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죽음 불안은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노인-죽음 현저성 집단이 청년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F(3, 102) = 2.816, p = .043$. 특성 공감 총점 또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청년-통제 집단에 비해 노인 집단이 유의하게 높았다, $F(3, 102) = 3.835, p = .012$. 특성 공감의 하위유형에서는 인지적 공감과 자기지향적 공감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Welch's $F(3, 54.261) = 1.272, p = .288$; $F(3, 102) = .627, p = .599$. 반면, 타인지향적 공감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노인이 청년에

비해 높았다, Welch's $F(3, 54.141) = 13.628, p < .001$. 사회적 바람직성은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노인이 청년에 비해 높았다, $F(3, 102) = 20.122, p < .001$.

특성 공감 집단 비교

특성 공감의 연령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 통제 전 특성 공감을 MANOVA로 분석하였다. 또한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측정되므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기기만 하위척도를 활용한 수정 점수를 산출한 후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사회적 바람직성 통제 전, 다변량 수준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Pillai's trace = .316, $F(3, 102) = 15.672, p < .001$. 각 하위유형별 결과를 살펴보면, 특성 타인지향적 공감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노인이 청년보다 높은 수준의 타인지향적 공감을 보였다, $F(1, 104) = 41.053, p < .001, \eta^2 = .283$. 반면, 특성

표 2. 주요 변인 평균(표준편차) 비교 ($N = 106$)

변인	청년-통제 (n = 25)	청년-MS (n = 28)	노인-통제 (n = 26)	노인-MS (n = 27)	F	사후검정
DAS	44.44 (11.07)	43.61 (11.37)	39.15 (10.59)	36.30 (13.71)	2.816*	1=2>4 ^a
IRI	69.44 (10.34)	71.11 (7.90)	75.54 (6.24)	75.70 (8.10)	3.835*	1<3=4 ^a
PT	24.60 (5.67)	26.04 (2.82)	26.54 (3.88)	26.59 (4.05)	1.272	—
PD	21.92 (4.38)	21.50 (4.28)	21.23 (3.77)	20.33 (4.90)	.627	—
EC	22.92 (5.66)	22.14 (5.36)	27.77 (2.55)	27.93 (2.77)	13.628***	1=2<3=4 ^b
SDS-24	10.52 (4.48)	11.54 (3.99)	17.38 (3.89)	17.33 (4.44)	20.122***	1=2<3=4 ^a

주. MS: Mortality Salience, DAS: Death Anxiety Scale, IRI: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PT: Perspective Taking, PD: Personal Distress, EC: Empathic Concern, SDS-24: Social Desirability Scale-24.

^a는 Duncan, ^b는 Games-Howell, 1: 청년-통제 집단, 2: 청년-죽음 현저성 집단, 3: 노인-통제 집단, 4: 노인-죽음 현저성 집단. * $p < .05$ *** $p < .001$.

표 3. 연령에 따른 특성 공감 비교 ($N = 106$)

변인		청년 ($n = 53$)	노인 ($n = 53$)	F	p	η^2
사회적 바람직성 통제 전	인지적 공감	25.36 (4.36)	26.57 (3.93)	2.246	.137	.021
	자기지향적 공감	21.70 (4.29)	20.77 (4.36)	1.210	.274	.012
	타인지향적 공감	22.51 (5.46)	27.85 (2.64)	41.053	< .001	.283
사회적 바람직성 통제 후	인지적 공감	22.96 (4.35)	22.65 (5.15)	.113	.738	.001
	자기지향적 공감	25.41 (4.71)	27.22 (4.36)	4.165	.044	.039
	타인지향적 공감	18.75 (5.27)	26.57 (3.16)	85.997	< .001	.453

인지적 공감과 특성 자기지향적 공감은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적 바람직성 통제 후에도 다변량 수준에서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Pillai's trace = .513, $F(3, 102) = 35.853$, $p < .001$. 각 하위유형별 결과를 살펴보면, 특성 자기지향적 공감에서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노인이 청년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F(1, 104) = 4.165$, $p = .044$, $\eta^2 = .039$. 특성 타인지향적 공감에서도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노인이 청년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F(1, 104) = 85.997$, $p < .001$, $\eta^2 = .453$. 반면, 특성 인지적 공감은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죽음 불안과 특성 공감의 상관관계

죽음 불안과 특성 공감 하위유형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척도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과 노인을 구분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청년과 노인 모두에서 죽음 불안은 특성 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343$, $p = .013$; $r = .406$, $p = .003$. 특성 공감의 하위유형을 살펴보면, 청년은 죽음 불안과 특성 타인지향적 공감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 = .350$, $p = .011$, 노인은 죽음 불안과 특성 자기지향적 공감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 = .379$, $p = .006$. 반면, 특성 인지적 공감은 청년과 노인 모두에서 죽음 불안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죽음 현저성 조작 효과

죽음 현저성 조작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조작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다(표 5). 분석 결과, 연령의 주효과, 조건의 주효과, 연령과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Wilks Lambda = .816, $F(3, 100) = 7.515$, $p < .001$; Wilks Lambda = .309, $F(3, 100) = 74.405$, $p < .001$; Wilks Lambda = .878, $F(3, 100) = 4.622$, $p = .005$.

구체적으로, 죽음 현저성 조작 에세이 과제 몰입 정도를 측정하는 조작 점검 1은 연령의 주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1, 102) = 14.341$, $p < .001$, $\eta^2 = .123$, 청년이 노인보다 더 높은 몰입 수준을 보였다. 반면, 조건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통제 조건과 죽음 현저성 조건 간 몰입 수준은 차이가 없었음을 의미

표 4.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죽음 불안과 특성 공감의 상관

변인	1	2	3	4	5
청년 (n = 53)					
DAS	—				
IRI_total	.343*	—			
특성 공감					
(IRI)					
인지적 공감	.046	.691***	—		
자기지향적 공감	.168	.340*	-.134	—	
타인지향적 공감	.350*	.765***	.399**	.261	—
노인 (n = 53)					
DAS	—				
IRI_total	.406**	—			
특성 공감					
(IRI)					
인지적 공감	.072	.479***	—		
자기지향적 공감	.379**	.549***	-.242	—	
타인지향적 공감	.256	.634***	.158	.276*	—

주. DAS: Death Anxiety Scale, IRI: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조작 점검 평균(표준편차) (N = 106)

변인	청년-통제 (n = 25)	청년-MS (n = 28)	노인-통제 (n = 26)	노인-MS (n = 27)
조작 점검 1	6.04 (1.24)	5.82 (1.09)	5.35 (1.02)	4.98 (1.42)
조작 점검 2	2.00 (1.71)	5.64 (1.64)	2.15 (1.83)	3.56 (1.74)
조작 점검 3	5.88 (1.74)	1.54 (1.07)	4.65 (1.52)	1.48 (1.31)

주. MS: Mortality Salience.

조작 점검 1: 몰입 정도, 조작 점검 2: 죽음 생각 정도, 조작 점검 3: 치통 생각 정도.

한다. 죽음 생각 정도를 측정하는 조작 점검 2는 연령의 주효과, 조건의 주효과, 연령과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F(1, 102) = 8.282$, $p = .005$, $\eta^2 = .075$; $F(1, 102) = 56.377$, $p < .001$, $\eta^2 = .356$; $F(1, 102) = 11.127$, $p = .001$, $\eta^2 = .098$. 죽음 현저성 조건이 통제 조건에

비해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노인보다 청년에서 크게 나타났다. 치통에 대한 생각 정도를 측정하는 조작 점검 3 또한 연령의 주효과, 조건의 주효과, 연령과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 모두 유의하였다, $F(1, 102) = 5.362$, $p = .023$, $\eta^2 = .050$; $F(1, 102) =$

184.803, $p < .001$, $\eta^2 = .644$; $F(1, 102) = 4.492$, $p = .036$, $\eta^2 = .042$. 종합하면, 참가자들은 각 조건의 주제에 적절하게 반응하여 죽음 현저성 조작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조작 점검 문항에서 연령과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 조작 조건에 대한 반응 양상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더불어, 죽음 현저성 조작 이후 집단 간 정서 상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PANAS 점수를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의 주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Wilks Lambda = .907, $F(2, 101) = 5.198$, $p = .007$, 청년이 노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정 정서를 보고하였다. 즉, 죽음 현저성 조건과 통제 조건 간 정서 상태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상태 공감에서 나타난 집단 간 차이는 단순한 부정 정서의 증가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

연령 및 조건에 따른 상태 공감 차이

연령과 조작 조건에 따른 상태 공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성별, 학력, 사회적 바람직성을 공변량으로 통제한 MANCOVA를 실시하였다(표 6, 7).

분석 결과, 다변량 수준에서 연령의 주효과가 유

의하게 나타났으며, Pillai's trace = .260, $F(3, 97) = 11.362$, $p < .001$. 조건의 주효과 또한 유의하였다, Pillai's trace = .113, $F(3, 97) = 4.116$, $p = .009$. 반면, 연령과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Pillai's trace = .030, $F(3, 97) = 1.007$, $p = .393$.

각 상태 하위유형별 결과를 살펴보면, 상태 인지적 공감에서는 연령의 주효과만 유의하여 청년이 노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지적 공감을 보였다, $F(1, 99) = 28.909$, $p < .001$, $\eta^2 = .226$. 반면 조건의 주효과 및 연령과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상태 자기지향적 공감에서는 연령의 주효과, 조건의 주효과 및 연령과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F(1, 99) = .001$, ns ; $F(1, 99) = 1.836$, ns ; $F(1, 99) = .269$, ns . 상태 타인지향적 공감에서는 조건의 주효과만 유의하였고, 죽음 현저성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더 낮은 수준의 타인지향적 공감을 보였다, $F(1, 99) = 4.732$, $p = .032$, $\eta^2 = .046$. 반면 연령의 주효과와 연령과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99) = 1.799$, ns ; $F(1, 99) = .375$, ns . 종합하면, 상태 인지적 공감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청년이 노인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상태 타인지향적 공감은 통제 집단에 비해 죽음 현저성 집단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반면 상태 자기

표 6. 상태 공감 평균(표준편차) ($N = 106$)

변인		청년-통제 ($n = 25$)	청년-MS ($n = 28$)	노인-통제 ($n = 26$)	노인-MS ($n = 27$)
상태 공감 (K-MET)	인지적 공감	21.28 (2.23)	21.96 (2.12)	17.27 (3.94)	16.22 (3.88)
	자기지향적 공감	4.49 (1.32)	4.60 (0.81)	4.60 (1.09)	5.04 (1.27)
	타인지향적 공감	6.12 (1.45)	5.81 (1.09)	7.12 (0.74)	6.63 (1.18)

주. MS: Mortality Salience, K-MET: Korean-Multifaceted Empathy Task.

표 7. 연령 및 조작 조건에 따른 상태 공감 비교 (N = 106)

원인	종속변수	SS	df	MS	F	p	η^2
연령	인지적 공감	228.626	1	228.626	28.909	< .001	.226
	자기지향적 공감	.001	1	.001	.001	.974	.000
	타인지향적 공감	2.065	1	2.065	1.799	.183	.018
조건	인지적 공감	15.175	1	15.175	1.919	.169	.019
	자기지향적 공감	2.223	1	2.223	1.836	.179	.018
	타인지향적 공감	5.432	1	5.432	4.732	.032	.046
연령 × 조건	인지적 공감	18.960	1	18.960	2.397	.125	.024
	자기지향적 공감	.326	1	.326	.269	.605	.003
	타인지향적 공감	.430	1	.430	.375	.542	.004
오차	인지적 공감	782.934	99	7.908			
	자기지향적 공감	119.872	99	1.211			
	타인지향적 공감	113.642	99	1.148			
수정된 합계	인지적 공감	1676.226	105				
	자기지향적 공감	135.667	105				
	타인지향적 공감	159.147	105				

지향적 공감은 연령의 주 효과, 조건의 주효과, 연령과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죽음 현저성 조작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공감을 특성 공감과 상태 공감으로 구분한 뒤 각각 인지적 공감, 자기지향적 공감, 타인지향적 공감으로 세분화하여 죽음 불안 및 죽음 현저성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은 노인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죽음

불안을 보였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Chopik, 2017; Russac et al., 2007). 죽음 불안의 연령 차이는 노년층이 죽음 관련 사건을 더 빈번하게 경험하면서 죽음을 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Maxfield et al., 2010). 또한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죽음 불안이 낮게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Zhang et al., 2019). 이는 죽음의 수용과 삶의 의미가 죽음 불안과 관련된다고 보는 의미 관리 이론(Meaning Management Theory)의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Wong, 2007). 사회정서선택이론의 관점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제한된 시간 지각으로 인해 정서적 만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

정적인 정보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정서 조절 전략이 나타난다(Carstensen et al., 1999). 이러한 노년기의 특징 역시 노인의 낮은 죽음 불안을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다. 다만, 노인의 낮은 죽음 불안이 반드시 적응적인 죽음 수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삶의 즐거움이 감소하고 죽음을 바라는 노인의 경우에도 죽음 불안이 매우 낮을 수 있다(Lonetto & Templer, 1986).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노인이 청년보다 죽음 불안 수준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그 원인과 심리적 의미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성 공감의 연령차를 추가로 살펴본 결과, 사회적 바람직성 통제 전에는 노인이 청년보다 타인지향적 공감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제 후에도 유지되었다. 자기지향적 공감은 사회적 바람직성 통제 후에 노인이 청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인지적 공감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특성 공감의 연령 차이가 공감의 하위유형과 사회적 바람직성의 통제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청년과 노인 모두에서 죽음 불안은 특성 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공감의 하위유형에서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청년에서는 죽음 불안이 특성 타인지향적 공감과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노인에서는 특성 자기지향적 공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서선택이론에 근거하여 청년은 자기보호적인 반응으로 인해 자기지향적 공감이, 노인은 관계 지향적 목표로 인해 타인지향적 공감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결과는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이는 죽음 불안이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의 정서적, 대인관계적 반응과 연결될 가능성을 시

사한다. 다만, 청년과 노인의 죽음 불안과 특성 공감 간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된 결과이므로, 변인 간 관계의 방향성을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청년에서 죽음 불안과 특성 타인지향적 공감이 정적 상관을 보인 결과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타인과의 관계 및 정서적 연결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초기 성인기의 주요 발달 과업은 친밀감 형성이며(Erikson & Erikson, 1997), 청년기는 또래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기이다(Sekowski, 2022). 또한 공포관리이론에서는 실존적 위협 상황에서 친밀감과 사회적 유대를 추구하는 원거리 방어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Florian et al., 2002). 따라서 청년에서 나타난 결과는 죽음에 대한 민감성과 타인에 대한 정서적 관심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노인에서는 죽음 불안이 특성 자기지향적 공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노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은 통합감(integrity)이며, 죽음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수용 및 통합하는 것은 삶의 성숙에 중요한 요소이다(Erikson & Erikson, 1997). 실제로 노년기의 자아 통합감과 지혜, 삶의 의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Brudek & Sekowski, 2021; Parker, 2013; Zhang et al., 2019). 또한 노인의 죽음 불안은 비관주의, 신체 및 심리적 어려움, 외로움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ortner & Neimeyer, 1999; Younes et al., 2024). 한편, 삶에 대한 높은 수용과 통합은 낮은 죽음 불안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yke, 2013; Zhang et al., 2019). 종합하면, 노년기의 죽음 불안은 부정적인 정서 경험과 관련되며, 이러

한 특성이 타인의 고통에 대한 자기초점적 반응과도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가설과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를 통한 반복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특성 인지적 공감은 죽음 불안과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인지적 공감이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과정과 관련되며, 집행기능과 같은 인지적 자원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일 수 있다(Dorris et al., 2022; Yan et al., 2020). 실제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인지적 공감 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Kaklauskaitė & Antinienė, 2016).

셋째, 상태 공감에서는 공감의 하위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상태 인지적 공감은 죽음 현저성 조작과 관계없이 청년이 노인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특성 인지적 공감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인지적 공감의 연령차가 특성과 상태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증가에 따라 인지적 공감이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와도 일치한다(Baksh et al., 2018; Khanjani et al., 2015).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관점에서 정서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으로 작업 기억, 억제, 인지적 유연성과 같은 집행기능의 영향을 받는다(Yan et al., 2020). 노화에 따라 집행기능과 관련된 영역인 전전두 피질과 인지적 공감 네트워크인 배내측 전전두 피질의 활성화가 감소한다(Moran et al., 2012; West, 1996). 따라서 노년기의 집행기능 저하는 타인의 관점을 유지하고 자신의 관점과 구분하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환하는 과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인지적 공감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이 있다(Idowu & Szameitat, 2023). 또한 노년기에는 정보처리 속도의 저하와 작업기억 용량의 감소가 함께 나타나 사회적 상황에서 다양한 단서를 통합하고 해석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Kerchner et al., 2012). 더불어, 인지적 공감은 비교적 안정적인 인지적 특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죽음 현저성 조작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상태 자기지향적 공감에서는 연령 및 조작 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태 타인지향적 공감에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죽음 현저성 조건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특성 공감에서 노인이 청년보다 자기지향적 및 타인지향적 공감이 높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는 죽음을 인식하게 될 때 타인에 대한 염려와 공감적 관심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두 하위 요인 간의 차이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자기지향적 공감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정서적 불편감이나 정서 공유를 포함하는 비교적 자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반응이다(López-Pérez et al., 2014). 타인지향적 공감은 타인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염려와 연민을 느끼는 정서 반응이며, 보다 많은 인지적, 정서적 자원이 필요할 수 있다(Malbois, 2023). 공포관리이론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인식이 활성화되면 실존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가 작동한다(Arndt et al., 1997). 특히 죽음 인식 직후에는 근거리 방어가 작동하여 죽음 관련 사고를 의식 수준에서 억제하거나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 반응이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자기보존적 처리에 심리적 자원이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타인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타인지향적 공감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

서 타인지향적 공감만 감소하고 자기지향적 공감은 변화하지 않은 결과는 이러한 설명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 결과 해석 시에는 죽음 현저성 조작 이후에도 죽음 관련 자극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죽음 현저성 조작 이후 상태 공감을 측정하는 K-MET에서 장례 및 부정적 상황 자극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절차는 죽음 관련 사고를 지속하거나 다시 활성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죽음과 관련된 생각을 충분히 의식 수준 밖으로 이동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공감 과제를 수행했을 수 있으며, 이는 원거리 방어보다 근거리 방어가 상대적으로 지속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죽음 현저성 조건에서 타인지향적 공감이 감소한 결과는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를 보고한 선행 연구와 상반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는 죽음 관련 사고가 의식에서 벗어난 이후 문화적 가치와 세계관을 강화하는 원거리 방어로 설명되어 왔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죽음 관련 사고가 반복적으로 활성화되어 원거리 방어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이는 타인지향적 감소를 설명하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죽음 현저성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공감의 하위유형 수준에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죽음 현저성이 상태 타인지향적 공감을 감소시킨 결과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상황에 따라 타인에 대한 관심과 공감적 반응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사별, 전염병, 대형 재난, 인명사고와 같이 죽음이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을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존적 위협 상황에서는 근거리 방어가 활성화되며 타인에 대한 공감적 반응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죽음이나 상실을 경험한 개인에 대한 개입 초기에는 공감 증진보다 정서적 안정을 우선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죽음 불안의 심리적 의미가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청년에서는 죽음 불안이 관계 및 사회적 연결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노인에서는 신체적·심리적 취약성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죽음 불안을 이해할 때는 발달 단계와 심리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청년과 노인 집단으로만 표본이 구성되어 있어 전체 연령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중년기에 죽음 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몇몇 연구를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중년 집단을 포함하여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Gesser et al., 1988; Russac et al., 2007). 둘째, 실험 절차 전반에서 죽음 관련 자극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죽음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연 시간과 과제 구성을 조정하여 근거리 방어와 원거리 방어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감 측정이 자기보고식 반응에 기반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노인 집단에서 특성 공감 척도의 내적 합치도가 낮게 나타났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행동 과제 및 생리적 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죽음 현저성과 공감 간의 관계를 보다 다각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죽음 현저성이 공감의 하위

유형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상태 타인지향적 공감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정서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와 공감적 반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죽음 현저성 효과는 공감의 하위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실존적 위협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과 공감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죽음이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공감 반응을 보다 맥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강연옥, 장승민, 김상윤, 대한치매학회 (2020).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2판(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2nd Edition) 사용자 지침서**. 인싸이트.
- 강효신, 김빛나 (2021). 미래시간조망 척도의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과 연령 집단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4(1), 63-80.
<https://doi.org/10.35574/KJDP.2021.3.34.1.63>
- 고효진, 최지옥, 이흥표 (2006). Templer 죽음 불안 척도의 요인구조와 신뢰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315 - 328.
- 김용석 (2010).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개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3), 1-39.
- 김용석 (2018).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DS-24)의 타당화 및 적용. **사회복지연구**, 49(3), 87-114.
<https://doi.org/10.16999/kasws.2018.49.3.87>
- 박성희 (1997). **공감과 공감적 이해**.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홍석, 이정미 (2016). 정적정서 부적정서 척도(PANAS)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4), 617-641.
<https://doi.org/10.22257/kjp.2016.12.35.4.617>
- 이슬비, 석동헌 (2020). 죽음 현저성, 문화적 세계관 위협 및 집단소속이 기부와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역과 세계**, 44(1), 145-180.
<https://doi.org/10.33071/ssricb.44.1.202003.145>
- 이슬아, 전경옥, 조현주, 권정혜 (2016). 한국판 다면적 공감 검사(K-MET) 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2), 541-556.
<https://doi.org/10.15842/kjcp.2016.35.2.011>
- 이우제, 조은이 (2022). 국내 죽음 불안 연구 동향: 상담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과학연구**, 41(1), 29-66.
<https://doi.org/10.18284/jss.2022.04.41.1.29>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35-946.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 59-76.
- 전효리, 강효신 (2025). 성인 ADHD 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부분최소제곱법-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11(4), 653-683.
- Arndt, J., Greenberg, J., Solomon, S., Pyszczynski, T., & Simon, L. (1997). Suppression, accessibility of death-related thoughts, and cultural worldview defense: Exploring the psychodynamics of terror mana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1), 5-18.
<https://doi.org/10.1037/0022-3514.73.1.5>
- Arndt, J., Routledge, C., Cox, C. R., & Goldenberg, J. L. (2005). The worm at the core: A terror management perspective on the roots of psychological dysfunction.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11(3), 191-213.
<https://doi.org/10.1016/j.appsy.2005.07.002>
- Arndt, J., & Vess, M. (2008). Tales from existential oceans: Terror management theory and how the awareness of our mortality affects us all.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2), 909-928.
<https://doi.org/10.1111/j.1751-9004.2008.00079.x>
- Baksh, R. A., Abrahams, S., Auyeung, B., & MacPherson, S. E. (2018). The Edinburgh social cognition test (ESCoT): Examining the effects of age on a new measure of theory of mind and social norm understanding. *PLOS ONE*, 13(4), e0195818.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95818>
- Beadle, J. N., & de la Vega, C. E. (2019). Impact of aging on empathy: Review of psychological and neural mechanisms. *Frontiers in Psychiatry*, 10, 331.
<https://doi.org/10.3389/fpsy.2019.00331>
- Brudek, P., & Sekowski, M. (2021). Wisdom as the mediator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meaning in life and attitude toward death.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83(1), 3-32.
<https://doi.org/10.1177/0030222819837778>
- Burke, B. L., Martens, A., & Faucher, E. H. (2010). Two decades of terror management theory: A meta-analysis of mortality salience research.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4(2), 155-195.
<https://doi.org/10.1177/1088868309352321>
- Carstensen, L. L., Isaacowitz, D. M., & Charles, S. T. (1999). Taking time seriously: A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4(3), 165-181.
<https://doi.org/10.1037/0003-066X.54.3.165>
- Chan, L. C., & Yap, C. C. (2009). Age, gender, and religiosity as related to death anxiety. *Sunway Academic Journal*, 6, 1-16.

- Chopik, W. J. (2017). Death across the lifespan: Age differences in death-related thoughts and anxiety. *Death Studies*, 41(2), 69-77.
<https://doi.org/10.1080/07481187.2016.1206997>
- Chrysikou, E. G., & Thompson, W. J. (2016). Assessing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through the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An argument against a two-factor model. *Assessment*, 23(6), 769-777.
<https://doi.org/10.1177/1073191115599055>
- Cuff, B. M., Brown, S. J., Taylor, L., & Howat, D. J. (2016). Empathy: A review of the concept. *Emotion Review*, 8(2), 144-153.
<https://doi.org/10.1177/1754073914558466>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126.
<https://doi.org/10.1037/0022-3514.44.1.113>
- Dorris, L., Young, D., Barlow, J., Byrne, K., & Hoyle, R. (2022). Cognitive empathy across the lifespan. *Developmental Medicine & Child Neurology*, 64(12), 1524-1531.
<https://doi.org/10.1111/dmcn.15263>
- Dziobek, I., Rogers, K., Fleck, S., Bahnemann, M., Heekeren, H. R., Wolf, O. T., & Convit, A. (2008). Dissociation of cognitive and emotional empathy in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using the multifaceted empathy test (MET).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8(3), 464-473.
<https://doi.org/10.1007/s10803-007-0486-x>
- Eisenberg, N., & Lennon, R. (1983).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related capacities. *Psychological Bulletin*, 94(1), 100 - 131.
<https://doi.org/10.1037/0033-2909.94.1.100>
- Erikson, E. H., & Erikson, J. M. (1997). *The life cycle completed: Extended version*. W. W. Norton & Company.
-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https://doi.org/10.3758/BRM.41.4.1149>
- Florian, V., Mikulincer, M., & Hirschberger, G. (2002). The anxiety-buffering function of close relationships: Evidence that relationship commitment acts as a terror management mechan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4), 527-542.
<https://doi.org/10.1037/0022-3514.82.4.527>
- Fortner, B. V., & Neimeyer, R. A. (1999). Death anxiety in older adults: A quantitative review. *Death Studies*, 23(5), 387-411.
<https://doi.org/10.1080/074811899200920>
- Gesser, G., Wong, P. T., & Reker, G. T.

- (1988). Death attitudes across the life-spa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eath attitude profile (DAP).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18(2), 113-128.
<https://doi.org/10.2190/0DQB-7Q1E-2BER-H6YC>
- Gould, O. N., & MacNeil Gautreau, S. (2014). Empathy and conversational enjoyment in younger and older adults. *Experimental Aging Research*, 40(1), 60-80.
<https://doi.org/10.1080/0361073X.2014.857559>
- Greenberg, J., & Arndt, J. (2012). Terror management theory. In P. A. M. v. Lange, A. W. Kruglanski,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Vol. 1, pp. 398-415). SAGE Publications Ltd.
<https://doi.org/10.4135/9781446249215.n16>
- Greenberg, J., Pyszczynski, T., & Solomon, S. (1986).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 need for self-esteem: A terror management theory. In R. F. Baumeister (Ed.), *Public self and private self* (pp. 189-212). Springer.
- Greenberg, J., Pyszczynski, T., Solomon, S., Rosenblatt, A., Veeder, M., Kirkland, S., & Lyon, D. (1990). Evidence for terror management theory II: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on reactions to those who threaten or bolster the cultural world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308-318.
<https://doi.org/10.1037/0022-3514.58.2.308>
- Gurbuz, A., & Yorulmaz, O. (2024). Death anxiety in psychopathology: A systematic review. *Psikiyatride Güncel Yaklaşımlar*, 16(1), 159-174.
<https://doi.org/10.18863/pgy.1267748>
- Handagoon, S. A., & Varma, P. (2019). Death anxiety, coping strategies, and empathy among Thai physicians in Chiang Mai. *Scholar: Human Sciences*, 11(2), 346-365.
- Hohman, Z. P., & Hogg, M. A. (2015). Mortality salience, self-esteem, and defense of the group: Mediating role of in-group identific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5(2), 80-89.
<https://doi.org/10.1111/jasp.12277>
- Idowu, M. I., & Szameitat, A. J. (2023). Executive function abilities in cognitively healthy young and older adults: A cross-sectional study. *Frontiers in Aging Neuroscience*, 15, 976915.
<https://doi.org/10.3389/fnagi.2023.976915>
- Iverach, L., Menzies, R. G., & Menzies, R. E. (2014). Death anxiety and its role in psychopathology: Reviewing the status of a transdiagnostic construct. *Clinical Psychology Review*, 34(7), 580-593.
<https://doi.org/10.1016/j.cpr.2014.09.002>
- Jonas, E., Schimel, J., Greenberg, J., & Pyszczynski, T. (2002). The Scrooge effect: Evidence that mortality salience increases prosocial attitudes and

-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10), 1342-1353.
<https://doi.org/10.1177/014616702236834>
- Jordan, M. R., Amir, D., & Bloom, P. (2016). Are empathy and concern psychologically distinct? *Emotion*, 16(8), 1107-1116.
<https://doi.org/10.1037/emo0000228>
- Kaklauskaitė, Ž., & Antinienė, D. (2016). Death anxiety and empathy among male and female medical students. *Baltic Journal of Sport and Health Sciences*, 4(103), 11-18.
<https://doi.org/10.33607/bjshs.v4i103.67>
- Kerchner, G. A., Racine, C. A., Hale, S., Wilhelm, R., Laluz, V., Miller, B. L., & Kramer, J. H. (2012). Cognitive processing speed in older adults: Relationship with white matter integrity. *PLOS ONE*, 7(11), e50425.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50425>
- Khanjani, Z., Mosanezhad Jeddi, E., Hekmati, I., Khalilzade, S., Etemadi Nia, M., Andalib, M., & Ashrafian, P. (2015). Comparison of cognitive empathy, emotional empathy, and social functioning in different age groups. *Australian Psychologist*, 50(1), 80-85.
<https://doi.org/10.1111/ap.12099>
- Koole, S. L., Greenberg, J., & Pyszczynski, T. (2006). Introducing science to the psychology of the soul: Experimental existential psycholog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5(5), 212-216.
<https://doi.org/10.1111/j.1467-8721.2006.00438.x>
- Kunyk, D., & Olson, J. K. (2001). Clarification of conceptualizations of empath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5(3), 317-325.
<https://doi.org/10.1046/j.1365-2648.2001.01848.x>
- Lonetto, R., & Templer, D. I. (1986). *Death anxiety*.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 Lopez-Perez, B., Carrera, P., Ambrona, T., & Ocea, L. (2014). Testing the qualitative differences between empathy and personal distress: Measuring core affect and self-orientation. *The Social Science Journal*, 51(4), 676-680.
<https://doi.org/10.1016/j.soscij.2014.08.001>
- Luo, S., Shi, Z., Yang, X., Wang, X., & Han, S. (2014). Reminders of mortality decrease midcingulate activity in response to others' suffering.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9(4), 477-486.
<https://doi.org/10.1093/scan/nst010>
- Lyke, J. (2013). Associations among aspects of meaning in life and death anxiety in young adults. *Death Studies*, 37(5), 471-482.
<https://doi.org/10.1080/07481187.2011.649939>
- Malbois, E. (2023). What is sympathy?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 other-oriented emotions. *Emotion Review*, 15(1), 85-95.
<https://doi.org/10.1177/17540739221140404>
- Maxfield, M., Solomon, S., Pyszczynski, T., & Greenberg, J. (2010). Mortality salience effects on the life expectancy estimates of older adults as a function of neuroticism. *Journal of Aging Research*, 2010(1), 260123.
<https://doi.org/10.4061/2010/260123>
- Mikulincer, M., Florian, V., & Hirschberger, G. (2003). The existential function of close relationships: Introducing death into the science of lo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7(1), 20-40.
https://doi.org/10.1207/S15327957PSPR0701_2
- Moran, J. M., Jolly, E., & Mitchell, J. P. (2012). Social-cognitive deficits in normal aging. *Journal of Neuroscience*, 32(16), 5553-5561.
<https://doi.org/10.1523/JNEUROSCI.5511-11.2012>
- Oliver, L. D., Neufeld, R. W., Dziobek, I., & Mitchell, D. G. (2016). Distingu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aspects of empathic responding as a function of psychopathic, autistic, and anxious trai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9, 81-88.
<https://doi.org/10.1016/j.paid.2016.04.058>
- Parker, D. W.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ego integrity and death attitudes in older adults. *America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2(1), 7-15.
<https://doi.org/10.11648/j.ajap.20130201.12>
- Pyszczynski, T., Greenberg, J., Solomon, S., & Maxfield, M. (2006). On the unique psychological import of the human awareness of mortality: Theme and variations. *Psychological Inquiry*, 17(4), 328-356.
<https://doi.org/10.1080/10478400701369542>
- Quinde-Zlibut, J. M., Williams, Z. J., Gerdes, M., Mash, L. E., Heflin, B. H., & Cascio, C. (2021). Multifaceted empathy differences in children and adults with autism. *Scientific Reports*, 11(1), 19503.
<https://doi.org/10.1038/s41598-021-98516-5>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https://doi.org/10.1177/014662167700100306>
- Russac, R., Gatliff, C., Reece, M., & Spottswood, D. (2007). Death anxiety across the adult years: An examination of age and gender effects. *Death Studies*, 31(6), 549-561.
<https://doi.org/10.1080/07481180701356936>
- Sassenrath, C. (2020). "Let me show you how nice I am": Impression management as bias in empathic response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 11(6), 752-760.
<https://doi.org/10.1177/1948550619884566>
- Schimmel, J., Wohl, M. J., & Williams, T. (2006). Terror management and trait empathy: Evidence that mortality salience promotes reactions of forgiveness among people with high (vs. low) trait empathy. *Motivation and Emotion, 30*(3), 214-224.
<https://doi.org/10.1007/s11031-006-9040-y>
- Schindler, S., Reinhardt, N., & Reinhard, M.-A. (2021). Defending one's worldview under mortality salience: Testing the validity of an established idea.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93*, 104087.
<https://doi.org/10.1016/j.jesp.2020.104087>
- Schumaker, J. F., Warren, W. G., & Groth-Marnat, G. (1991). Death anxiety in Japan and Australia.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1*(4), 511-518.
<https://doi.org/10.1080/00224545.1991.9713881>
- Sekowski, M. (2022). Attitude toward death from the perspective of Erik Erikson's theory of psychosocial ego development: An unused potential.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84*(3), 935-957.
<https://doi.org/10.1177/0030222820921604>
- Shamay-Tsoory, S. G., Aharon-Peretz, J., & Perry, D. (2009). Two systems for empathy: A double dissociation between emotional and cognitive empathy in inferior frontal gyrus versus ventromedial prefrontal lesions. *Brain, 132*(3), 617-627.
<https://doi.org/10.1093/brain/awn279>
- Sommerlad, A., Huntley, J., Livingston, G., Rankin, K. P., & Fancourt, D. (2021). Empathy and its associations with age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a large UK population sample. *PLOS ONE, 16*(9), e0257557.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57557>
- Sun, B., Luo, Z., Zhang, W., Li, W., & Li, X. (2018). Age-related differences in affective and cognitive empathy: Self-report and performance-based evidence. *Aging, Neuropsychology, and Cognition, 25*(5), 655-672.
<https://doi.org/10.1080/13825585.2017.1360835>
- Sze, J. A., Gyurak, A., Goodkind, M. S., & Levenson, R. W. (2012). Greater emotional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in late life. *Emotion, 12*(5), 1129-1140.
<https://doi.org/10.1037/a0025011>
- Taubman-Ben-Ari, O., Findler, L., & Mikulincer, M. (2002).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on relationship strivings and beliefs: The moderating role of attachment styl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3), 419-441.
<https://doi.org/10.1348/014466602760344296>
- Templer, D. I. (1970).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death anxiety scale. *The*

-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82(2), 165-177.
<https://doi.org/10.1080/00221309.1970.9920634>
- van Lange, P. A. M., Kruglanski, A. W., & Higgins, E. T. (2012).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Vol. 1). Sage Publications Ltd.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https://doi.org/10.1037/0022-3514.54.6.1063>
- West, R. L. (1996). An application of prefrontal cortex function theory to cognitive aging. *Psychological Bulletin*, 120(2), 272-292.
<https://doi.org/10.1037/0033-2909.120.2.272>
- Wong, P. T. P. (2007). Meaning management theory and death acceptance. In A. Tomer & P. T. Wong (Eds.), *Existential and spiritual issues in death attitudes*(pp. 91-114). Psychology Press.
- Yan, Z., Hong, S., Liu, F., & Su, Y. (2020).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executive function. *PsyCh Journal*, 9(1), 34-43.
<https://doi.org/10.1002/pchj.311>
- Yalom, I. D. (1980). *Existential psychotherapy*. Basic Books.
- Ye, J.-X., Huang, L.-Q., & Yang, S.-L. (2025).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eath anxiety and empathy among nursing students at an early stage of their clinical internships. *World Journal of Psychiatry*, 15(7), 106845.
<https://doi.org/10.5498/wjp.v15.i7.106845>
- Yen, C.-L., Cheng, C.-P., Huang, C.-L., & Lin, Y.-C. (2021). Does awareness of death strengthen awareness of self? The effects of existential threat on self-focus. *Current Psychology*, 40(5), 2349-2354.
<https://doi.org/10.1007/s12144-019-00172-6>
- Younes, R. S., Rahme, E., Rajha, F., & Abboud Mzawak, M. (2024). Exploring death anxiety among older adults: An integrative review of associated factors and interventions.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177/00302228241272578>
- Zahn-Waxler, C., & Radke-Yarrow, M. (1990). The origins of empathic concern. *Motivation and Emotion*, 14(2), 107-130.
<https://doi.org/10.1007/BF00991639>
- Zaleskiewicz, T., Gasiorowska, A., & Kesebir, P. (2015). The Scrooge effect revisited: Mortality salience increases the satisfaction derived from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9, 67-76.

- <https://doi.org/10.1016/j.jesp.2015.03.005>
Zaleskiewicz, T., Gasiorowska, A., Kesebir, P.,
Luszczynska, A., & Pyszczynski, T. (2013).
Money and the fear of death: The
symbolic power of money as an
existential anxiety buffer.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6, 55-67.
<https://doi.org/10.1016/j.joep.2013.02.008>
Ze, O., Thoma, P., & Suchan, B. (2014).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in
younger and older individuals. *Aging &
Mental Health*, 18(7), 929-935.
<https://doi.org/10.1080/13607863.2014.899973>
Zhang, J., Peng, J., Gao, P., Huang, H., Cao,
Y., Zheng, L., & Miao, D. (2019).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in life and
death anxiety in the elderly: Self-esteem
as a mediator. *BMC Geriatrics*, 19(1), 308.
<https://doi.org/10.1186/s12877-019-1316-7>
Zhao, X., Li, X., Song, Y., & Shi, W. (2019).
Autistic traits and prosocial behaviour in
the general population: Test of the
mediating effects of trait empathy and
state empathic concern.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49(10), 3925-3938.
<https://doi.org/10.1007/s10803-018-3745-0>

Age Differences in Empathy Subtypes in Response to Mortality Salience

Yunseo Jo¹

Hyo Shin Kang²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¹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²

Age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on empathy subtypes were examined.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one of four groups: young-control (n = 25), young-mortality salience (n = 28), older-control (n = 26), and older-mortality salience (n = 27). Participants completed death anxiety and trait empathy measures, followed by mortality salience and state empathy tasks. Young adults reported greater death anxiety than older adults. Death anxiety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rait empathy in both age groups, although its association with empathy subtypes differed with age. Other-oriented empathy was lower in the mortality salience condition than in the control condition, regardless of age. Cognitive empathy was lower in older than in young adults, whereas self-oriented empathy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ortality salience may differentially influence empathy subtypes, particularly by reducing empathic concern for others.

Keywords : Mortality salience, empathy, age difference